

# 목양칼럼

## 당신의 꿈을 말하세요

꿈을 품고만 있으면 그 꿈은 그저 꿈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꿈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 꿈이 현실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Martin Luther King Day 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꿈을 꺼내어 말했습니다. 외쳤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의 꿈은 많은 자의 반대를 일으켰지만,  
 더 많은 자의 뜨거운 행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꿈을 말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 꿈을 몰랐을 것이고  
 그 꿈이 세상을 바꾸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 꿈을 들으시오” (창 37:5-6)  
 말로 표현된 그의 꿈 때문에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그의 꿈은 마침내 이루어져 세상을 살렸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우리 교육부 자녀들에게 꿈을 말해 보라고 합니다.  
 그들을 대표해 이십여 명의 친구들이 목직한 꿈, 재미있는 꿈, 가슴을 뛰게 하는 꿈,  
 전혀 예상치 못한 꿈들을 그 꿈의 옷을 입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들이 씨앗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꿈이 되길 기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이부터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꿈을 꾸다고 했는데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당신의 꿈이 울려 퍼질 때  
 저도 당신의 그 벽찬 꿈을 듣고 싶습니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b>원로목사</b> 장영춘	<b>담임목사</b> 김성국		
<b>부목사</b>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b>전도목사</b> 이신은 (646)220-8324	<b>다민족선교사</b> 송요한 (917)940-0596		
<b>전도사</b>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웅/QPEM대학부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b>교육전도사</b>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규/청년부 (917)736-3429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중국어교부 (646)789-1118
<b>직인</b> 정진규/관리 (646)651-7255			
<b>찬양대</b>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중국어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지휘 / 윤원상
반주 / 이선영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윤현주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VEN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8년 1월 14일  
 제 44-2호

## 주일예배 (1,3부)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20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차상남 장로 3부 / 함용식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17:1-16	사회자
찬양 CHORUS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임마누엘 찬양대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반드시 승리하라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352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552 / 1,2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 주일예배 (2,4부)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최원일 장로  
4부 / 남형욱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OFFERING & HYMN 352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2부: 출애굽기 17:1-16 사회자  
4부: 갈라디아서 2:19-21

찬양 CHORUS 내가 산을 향하여 호산나 찬양대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만드시 승리하리라** 2부 / 김성국 목사  
**복음을 믿으라: 죽음** 4부 / 오인수 목사

\* 찬송 HYMN 하나님의 은혜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 수요 기도 예배

오후 8:00 (1/17/18) 사회: 김성국 목사

찬양 장로 일동

성경봉독 사회자

이사야 52:1-7

말씀 전성호 전도사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합심기도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 새가족 환영회

예수의 유일성

### 퀸장 바이블 칼리지(QBC)

오후 2:15-3:15

### 선교회 월례회

1/14(주) 퀸장 바이블 칼리지 후

## 교회소식

1월 전진의 달 -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 행사 및 모임

1/14(주) 선교회 월례회 1/14-16(주-화) 청년선교부 겨울수련회  
1/16~(화~) 대심방 시착 1/24(수) 신학교 개강 부흥회  
1/31(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2/7(수) 청장년부 헌신예배 / 지도원 성경공부

### 알림

- 퀸장 바이블 칼리지(QBC) 안내 1) 시간: 매 주일 오후 2:15-3:15 2) 학비: 1년/ \$10,00 (1년 교재비 포함)  
3) 장소: 청장년부-유아부실, 40대 선교회-중등부실, 50대 선교회-찬양대실,  
60대 선교회-고등부실, 70대 이상 선교회-친교실. \*유치부실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봐드립니다.
- 점심 식사 안내 오후 2:00부터는 배식하지 않습니다.
- 선교회 월례회는 오늘 '퀸장 바이블 칼리지' 를 마친 후에 선교회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심방을 1/16(화)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교구: F1, F2, F4, F5 2교구: F1, F2, F3 3교구: BS1, BS2 4교구: F1, F2, WH2,
- 청년선교부 겨울 수련회 안내 1) 일시: 1/14(주)-16(화) 2) 장소: 리벤젤 수양관 3) 강사: 조영천목사
- 가족기념 장학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가족의 소중한 기념일을 감사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입구에 신청서가 붙어있습니다.
- 2018년 성경읽기표와 새 헌금봉투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1/20(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청년선교부 (다음주: 종교동부)
- 가족기념 장학기금 송순애 권사

### 새가족

이정환 (청년대학 4Y1)

### 교우소식

병 환 양정오 권사(4F6)께서 코벨병원에서 심장 수술 후 4W437호실에 입원하였습니다.  
이봉희 권사(4L11)께서 NYU병원에서 폐 수술 후 가료중입니다.

임 명 전성호 (인턴전도사)

### 금식기도사

월 / 손귀자 송창호 박영미 고미자 최진옥 고미정 주 / 박수진 김주희 고부영 고정미 주봉순  
수 / 이숙녀 박영미 김영화 강명순 이승근 화 / 김화영 장지숙 박영미 고미자 최진옥 송경순  
금 / 조선희 박영미 김도완 목 / 심인보 최순금 박영미 양봉옥 이승근  
토 / 박제인 송정향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고등부실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6:3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고등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고등부실

## 출석

1부 예배	268	러시아어 예배	27	영어부	29	중등부	56
2부 예배	378	청년 선교부	84	유아부	34	고등부	51
3부 예배	315	주일 저녁 예배	369	유치부	27	청년 대학부	38
4부 예배	149	새벽 예배	835	중국어 교육부	18	교회 학교 예배	394
영어 예배	172	수요 기도 예배	302	유년부	73	주일 낮 장년 예배	1692
중국어 예배	299	새가족 환영회	12	초등부	68	주일 낮 총계	2086

## 1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김수산 장로

헌신기도	채영주장로	황인섭장로	황주현 장로	정길표 장로
책임권사	장현미 권사	이정심 권사	주광자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형섭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송현규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루디아, 여호수아 주일식사: 브리스가(다음주: 마르다)

##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렘(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 이번 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 문답 24)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 월 - 사도신경 / 찬송가 430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15장 1-11절

‘함께 있고 싶다!’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군가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누구하고 함께 있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는 말도 있는데 말입니다. 본문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 (4)을 예루살렘 교인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은혜 외에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과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고 거침없이 복음을 설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친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 화 - 사도신경 / 찬송가 510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15장 12-29절

우리 추억 속에 아름답게 자리잡아서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해보고 싶은 기억이 있나요?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팽이일 수도 있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했던 땅따먹기 놀이일 수도 있고, 가슴을 저미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꼭 다시 회복시켜 보고 싶은 장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6)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이 느껴집니까? 다윗의 장막이 왜 그리 특별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택함 받은 이방인들이 함께 지성소로 거침없이 들어가 예배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방언 민족이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소원 이루어드리는 우리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 수 - 사도신경 / 찬송가 384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15장 30-41절

다툼이 좋은 것인가 아닌가요? 물론 다투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냐 안가냐는 문제를 놓고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39) 아니 어떻게 다투으면 그렇게 한 팀으로 열방을 돌며 사역하던 두 명이 피차 갈라설 정도였을까요? 이 다툼이 좋았나요 나빴나요? 결과적으로는 좋았습니다. 둘이 다른 도시들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세워졌기 때문

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가?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나?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 목 - 사도신경 / 찬송가 524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16장 1-10절

어느 문이 닫힌다는 것은 다른 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면서 그와 함께하는 문이 닫혔지만 대신에 디모데와 함께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또한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문을 막으셨습니다. 대신에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외치는 문이 열렸습니다. 살아가면서 벽에 부딪히고 문이 닫히면서 이게 뭔가 고민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닫힐 때는 다른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 금 - 사도신경 / 찬송가 357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16장 11-18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꼭 책임져 주십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전도할 때 두아디라 시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머물 곳을 제공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라는 말씀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경험하며 삶의 자산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 토 - 사도신경 / 찬송가 185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16장 19-40절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루디아와 가족을 예수님 믿게하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간수와 가족을 복음을 믿게하시 구원하셨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 것입니다. 이 일로 간수가 자살하려 하자 바울과 실라가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28)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간수가 회개하고 가족이 세례 받았습니 다. 그리고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큰 기쁨이 그 곳에 가득했습니다. 우리 가정 또한 복음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며 큰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길 기도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합심 기도 / 주기도문